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9, 로마서 8:5-26

© 2024 Craig Keener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5-26의 9번째 세션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우리는 로마서 7장과 로마서 7장이 율법 아래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 기독교인들은 '그건 정말 나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처럼 들리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신자들을 위한 율법 아래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는 율법 아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자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의 싸움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입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가 사용하는 단어인 Phonema는 종종 마음으로 번역되며 성향, 마음의 틀, 사고 방식을 의미할 수 있으며 때로는 단순히 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8장 26절과 27절에서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성령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령의 생각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 이 문맥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의 활동과 우리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자신의 사고 방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제가 무신론에서 개종한 후 기독교 생활 초기에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들었던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단지 영 안에서 계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회심하기 전에는 제 마음을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끌려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내 영 안에서 계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의 어떤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나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단지 내 영으로 계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10개 정도의 텍스트를 내 마음에 번쩍이게 했고, 나는 '아,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해에 관한 텍스트였으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해력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과 통역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둘 다일 것입니다.

글쎄요, 어떤 집단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우리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더 끌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8장과 16절에 있는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영은 우리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이 우리 영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에도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으로 시작하는데, 나는 한동안 반대 가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때때로 고대 사상가들은 신성한 마음에 대해 말했고, 그들 안에 신성한 마음이 있고, 그들이 신성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실제로 신의 일부가 된다고 말하는 사상가들만큼 멀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압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다.

때때로 고대 사상가들은 신성한 마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어였습니다.

지혜 문헌에서는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 말하고, 우리는 지혜, 신성한 지혜 등을 통해 그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아시므로 신자들 속에서 영의 간구를 들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느끼는 방식, 하나님이 사물에 관심을 두는 방식, 사물을 보시는 방식과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로마서 1장이나 로마서 7장처럼 영이 없는 것보다 그것에 더 조화를 이룹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1장보다 낫습니다. 로마서 1장의 전체 그림은

죄로 인해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영사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는 이 구절을 밝히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로마인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었거나 그를 다른 곳에서 알았더라면 고린도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알았을 회중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후인 54년 이후의 이때이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는 그 이후에 개종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누군가를 통해 편지를 보낼 때 질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보비를 통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곳의 바울의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세부 사항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에 대한 바울의 다른 가르침 중 일부를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10절.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영원한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 통치자들은 영원한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지만 그것은 이 세대에서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가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지혜, 즉 이 시대에 지혜로 여겨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에서 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빛으로 사물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것은 그 지혜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통치자이신 주님이신,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문맥적 요점을 끌어내기 위해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번역하는 나의 방식입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영원한 지혜를 알지 못하므로 영원의 관점에서 내세의 지혜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전달되는 이 영원한 지혜는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기록 된 바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라고 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하신지라.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원한 일이요, 장차 올 약속된 일이니라. 이에 대해 성경을 인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추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통해 다가오는 세상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나누어 줄 줄 알고 나누어 주기를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가올 세상을 미리 맛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사야 64장 4절을 반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측량할 수 없지만 영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글의 다른 곳에서도 이에 대해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렬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미리 맛볼 수도 있습니다. 영의 통찰력에 대해 그는 계속해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은 계시자 역할을 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마음 속을 다 알지 못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의 영혼뿐이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글썄, 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초점은 영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우리 일상생활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에게 말하러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 글썄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연설과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평가와 공개 경쟁의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제자들이 서로 싸우곤 하는 라이벌 교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세상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것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나은 연설가인가요? 음, 아볼로는 더 나은 연설가이므로 우리는 아볼로를 따릅니다. Paul은 당신이 기독교 유명한 송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이 선생님도 아니고 저 선생님도 아닙니다. 글썄요, 이 사람이 말을 더 잘해요.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 사람이 그리스어를 더 잘 압니다.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그 모든 은사에 감사해야 하며 세상이 유명인을 판단하는 방식과 같은 세상적인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연예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일 것이다. 진리를 평가하려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합니다. 모두가 세계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물을 보는 방식인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볼 때 흔히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문화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증거를 제시하면 그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할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언젠가는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여러분의 신이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차이점이 뭐야? 누구나 프레임워크로 시작합니다. 사물을 평가하기 위한 올바른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 결정을 내렸다면, 하나님의 길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했다면, 우리는 반대되는 틀보다는 그 전제와 그 세계관, 그 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학자로서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모든 세계관에 공정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보냈습니다.

학자로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중에 가능한 모든 주장을 조사하려고 노력하고 연구를 마치고 나오자 아내가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게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평등주의자이든 보완주의자이든 그런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믿을 만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틀렸다거나 뭔가가 있다고 생각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면, 나는 그녀가 본 것, 일어난 일에 대해 그녀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글썄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증거와 증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증인과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텍스트를 다루는 경우 해당 텍스트 자체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의 규칙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공통 대화의 최소한의 기초라면 우리는 그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동하는 인식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을 이해하는 작동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삶에서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해야 했습니다. 인식론은 우리가 사물을 아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종종 사물을 알기 위한 우리의 시작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두가 그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과학에서는 관찰과 실험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 말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학적인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 법률, 저널리즘, 인류학, 사회학에서는 종종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돌아가서 이벤트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과 같으면 다시 죽이려고 다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적 틀이나 인식론적 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학문 분야에 적합한 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셨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추종자가 된 이유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David

Hume은 당신이 경험한 것, 또는 적어도 당신과 가까운 주변의 누군가가 경험한 것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제한된 인식론적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흄 자신도 자신의 연구 밖에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한된 인식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학문 영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지만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관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영의 문제를 이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만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목사가 되고 싶지만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알라곰이에요.

바울은 자연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대조합니다. 그렇다면 사이키코스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는 같은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다른 곳에서 이 문구를 사용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영체와 영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키코스는 영적인 몸이 단지 영으로 만들어진 몸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으로 만들어진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창세기 2장 7절의 그리스어 번역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 절에서 아담을 살아 있는 프수케로 계속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인가? 글썄요, 그것은 단지 아담이 하나님의 영과 별개로 스스로 살아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즉 육신의 삶이라고도 알려진 프치코스의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새로운 역동성과 추가적인 역동성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그것을 미리 맛봅니다. 이제 그는 이사야 40장 13절로부터 고린도전서 2장의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본문은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울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헬라어 번역본과 히브리어 번역본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의 히브리어에서는 누가 알려지느냐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번역에는 누가 알려져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을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40:13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려져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있기보다는 영에 있어야 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나는 플라톤의 책을 많이 읽었고 플라톤의 이원론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아, 아냐, 난 지금 육체 안에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당신의 구원이 왔다가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서의 그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것을 수용하는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육신에 있는 자의 차이는 그것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명확한 구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글썄요, 고대에는 구약과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수사학적 형태 중 하나가 이상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상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육신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육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 기껏해야 자신의 의에만 의존하는 사람, 자신의 정욕에 굴복하는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높은 사고 방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상형은 완전한 양자택일은 아닙니다. 불완전함 그 자체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뒤돌아보지 않고 더 큰 성숙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요인에 대해 자발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되기 전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형으로서 인류의 두 가지 범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인정된 수사적 형식이었습니다. Stoics는 이상적인 현자와 바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 현명한 사람이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 바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학파가 그런 구별을 했을 때 그들에게 "당신은 이 현명한 사람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글썄, 아니, 나는 아직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한 사람을 알고 있나요? 혹시 현명한 사람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지혜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이 현명한 사람 대 어리석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들이 이상형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물론. 잠언을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현명한 사람과 바보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에세네파, 쿰란 종파주의자들이 빛의 자녀 대 어둠의 자녀에 관해 이야기했던 사해 두루마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그들의 운동의 일부였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였지만 그들의 기도문 중 일부를 읽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제가 의롭게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구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이고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혼합물의 아이디어입니다. 개인에게는 지혜와 어리석음, 의로운 행동과 사악한 행동이 혼합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과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1서에도 비슷한 종류의 역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됩니다.

2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면 그는 역설을 사용하는데, 이는 역시 수사학적 기법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수수께끼를 풀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1서에서도 그것을 활용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한 관점을 얻기 위해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별의 핵심은 아담 안에서 사람이 의지할 것은 육신의 능력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생각이 평안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에 관해 읽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일을 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세세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당신의 불안에 대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 일을 직접 겪었다. 비록 내 경우에는 아내와 코트디부아르의 민족 화해에 관해 1,700명의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복용하고 있던 말라리아 예방약의 도움을 받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제가 복용하고 있던 말라리아 약은 특정 사람들에게 정신병적인 영향을 미쳤고, 저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공황 발작에 대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약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낼 때까지 서로를 먹이로 삼았습니다.

철학자들은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평화로운 마음에 관해 말할 때 가능한 주석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그에게 머물렀던 마음은 문맥에서 보고 헬라어 번역본과 비교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를 신뢰하는 마음, 여호와께 머물렀던 마음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그것으로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평안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그의 글의 다른 곳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6,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단지 신경계의 불안과 같은 불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신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6절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7절에서는 그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그는 선한 일을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철학자들도 이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위한 좋은 훈련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은 아마도 서로 화평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도 평화의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뿐 아니라 서로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롬 12:18, 14.19). 빌립보서의 문맥은 대인관계 갈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는 또한 로마서 12장에서 자격을 부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는 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당신과 싸우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화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길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마서 8장의 첫 번째 부분은 이상형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8장 14절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가실 때처럼 우리가 이 장에 있는 다른 출애굽기 언어의 맥락에서 출애굽기 언어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는 쫓겨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역발로.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의해 광야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메아리가 들립니다. 글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메아리가 있고, 예수의 장소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인용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아마도 출애굽기의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특히 도덕적인 문제에 적용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여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표현을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은 선교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문화적 장벽을 넘을 때 사도행전 8장과 29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저 아프리카 궁정 관리의 수레에 합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람을 네게 보내었으니 함께 가라 하시니

자, 이들은 이방인 고넬료의 사자들이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바울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금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영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고, 영이 저에게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준비됐어요'라는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아니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세요.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직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일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완전히 정서적이라면 깊은 곳으로 갑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것이 전적으로 인지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하다거나 우리 마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가끔은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이런 일을 겪었어요. 한번은 수요일 밤 예배에서 로마서 8장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학부생이었지만 초신자로서 제자를 삼았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이 저에게 속삭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싶나요? 나는 신의 축복을 원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이 나를 집 문밖으로, 또 다른 거리로, 또 다른 거리로 인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거리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거리, 몇 블록, 그리고 또 다른 거리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내 앞에는 고등학교 시절의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회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개종한 후에 그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그는 내가 한 일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로레나라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로레나를 만났는데, 오늘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의 청소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로 전 금요일에 로레나를 만났습니다.

로레나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집에 있을 때, 그녀는 어머니가 자기 앞에서 다른 남자친구들과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힘든 과거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때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금요일 밤에 기도했고, 그 주말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녀를 만지실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썄요, 제 말은, 그곳은 거대한 도시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구가 고작 30,000명 남짓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로레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금요일까지 그 동안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특별한 성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지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고등학교 친구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녀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녀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위선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군가가 나의 성실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로레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살았습니다. 나는 나가서 걷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나를 그녀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요 영적 은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요점은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요점은 이 맥락에서 바울이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의 도덕적 차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옳고 보기에 기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느니라. 그 언어는 출애굽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자녀로 불렸던 몇 군데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신명기는 또한 그들을 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적 제목이다. 물론 John에서는 그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메시아적 제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14과 시편 2:7.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다윗 가문 전체에 적용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글쎄요, 만약 그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면 그는 확실히 다윗의 혈통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서는 이 표현이 2편 7절에서 더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이 시기에는 그것이 탁월하게 기름부음받은 자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Q, Florelegium, 사해 두루마리 및 다른 곳에서 다윗의 궁극적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제가 배경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법에 있어서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관점에서 그것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가정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대와 갈릴리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이 의지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돌봐주실 수 있는 분, 그들을 사랑하고 징계하시는 분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상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할 때 그것은 여전히 의미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약성서의 저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존중하는 친밀함에 대한 개념은 15절에서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대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글썄요, 노예 제도의 정신은 아마도 출애굽의 개념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7.15에서 22절에 있는 것은 거기서는 두려움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힌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 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자주 말했는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폴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과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 개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이아 테시아(Huia Thesia)라는 용어는 9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을 두어 번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의 친밀함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중에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그리스도인 생활의 전반부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그 약의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첫 번째 시험이 나를 거의 죽일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너무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나는 내 사역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단순한 진부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던지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알고 있던 일이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은 마치 '맙소사, 이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때때로 저는 '오 하느님,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의 언어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선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 그를 계속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8:15에서는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에 대해 더 이야기합니다.

이 외치는 언어, 크라조(kradzo)는 사실 큰 외침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우리는 아바 하파테르(Abba hapater)를 외칩니다.

아바(Abba)는 아람어 표현이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람어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는 그들이 아람어를 알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무덤 비문과 로마의 다른 유대인 비문에서 얻는 인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몇몇 사람들이 아람어를 조금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바(Abba)라고 말할 때 그는 번역을 하면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것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는 이 일을 다시 합니다. 단, 거기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직접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에게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6. 이 아람어 문구가 초대 교회, 즉 헬라어 교회에 널리 퍼질 정도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근원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시며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Joachim Jeremias는 이에 대해 많은 글을 썼고, 매우 훌륭한 유대인 학자인 Geza Vermes가 그 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아바를 하나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예는 이것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Vermes가 카리스마 넘치는 랍비라고 불렀던 특정한 종류의 기도로 알려진 특별한 랍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랍비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Abba)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비유에서 하나님을 아바(Abba)와 같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독특하기 위해 완전히 독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Abba)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매우 독특하셨습니다. 친밀감이라는 제목을 암시합니다. 무례한 일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아빠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친밀감과 존경심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관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8장 16절. 성령이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초기 유대교에서 성령은 특히 구약에서도 종종 예언과 연관되었지만, 초기 유대 사상에서는 훨씬 더 지배적으로 연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나 희년서와 같은 예센 계열에서는 에스겔 36장처럼 성령도 정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성령은 때때로 예언적 능력 부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헌, 에스라 4장, 확실히 랍비들, 그리고 널리 초기 유대인 집단에서 성령은 예언의 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도요.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십시오.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바로 그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말한다고 말할 때,

우리 중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공부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헌신적으로 공부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경험합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코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께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결코 비전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영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증거하므로 성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고 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 영을 증거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는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넣어 주겠다고 하시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도 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다 영이다. 그분은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십니다. 모라비안 사람들은 내면의 증인을 매우 강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당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웨슬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것에 대해 전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웨슬리는 때때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 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양한 질문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친 것과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은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8장 17절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입양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교 문헌에서는 다가올 세상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출애굽기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상속과 소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실제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우리의 미래의 상속이나 미래의 소유에 대해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속이라는 언어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그는 그것을 4장에서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은 특히 다른 곳에서도 이 유산, 미래의 소유물을 상기시켜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그 영은 우리의 아르하본, 곧 계약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파피루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첫 번째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잊어버린 경우를 대비해서 몇 가지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비디오의 한 부분을 보고 다른 부분은 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몇 가지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13-14에서도 성령은 우리의 장래 기업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영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을 영으로 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영이니라. 당신은 목시적인 문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때로는 거의 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의 영광을 전달하려면 많은 이미지와 은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단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에스겔서를 뛰어 넘습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러한 연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면 최대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친밀감을 가질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예배 중에 그것을 너무나 깊이 경험하여 실제로 '하나님, 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식의 경험을 정기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지만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멈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고난과 영광.

때때로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지만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입니다. 17, 18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속받을 상속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때때로 성막이나 성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열왕기상 8장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무거움), 유대인들도 세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야카라.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 위에 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심히 중하여 능히 여호와 앞에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기억하시느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예루살렘이 구약의 지성소처럼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만함이 없이 영원무궁토록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그렇다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다른 이미지도 있지만 제한 없이 그분의 현존 안에 있다는 것은 가능한 가장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순교 등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비교가 항상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앞서 그것을 언급했고, 그것은 여기 8:18에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 앞에 있는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곳에서 현재의 고난은 훨씬 더 큰 영광의 무게를 지닐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영광과 무거움의 개념을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는 22절에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새 세상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세계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그가 세상을 위해 속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소식, 곧 마지막이 다가올 것과 관련된 좋은 소식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구약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린 제단 아래의 영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울은 “죄송합니다. 제단 아래 있는 이 영혼들, 순교한 자들이 소리 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우리가 흘린 피를 어느 때까지

값으실까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에서? 그리고 대답이 돌아옵니다. 동료의 전체 숫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음, 전체 숫자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던 사람들까지.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에 끝이 오리라. 현재의 고통을 우리는 다가올 세상의 산고로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산고의 마지막 기간, 즉 새로운 세계가 오기 전에 마지막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 자료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Mishnah Sotah 915처럼 랍비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 종말의 환난은 유대인 문학 전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산의 고통, 극심한 고통으로 묘사된다는 생각은 에스라서 4장과 같은 다른 유대 문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쿰란 찬송가의 세 번째 찬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림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우리가 2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합니다. 신음(22절, 23절, 26절). 여기에서 그는 신음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조물은 출산의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우리는 방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몸의 변화를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창조물은 신음하며 중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실 때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미리 맛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써 지금 그것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거하는 세상을 만드실 곳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몸의 변화를 위해 탄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장, 4장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언급한다고 가정할 때, 바울은 우리가 신음하는 것은 벗고 싶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벗고 싶어서 탄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을 천막이 불멸의 몸, 곧 부활의 몸으로 대체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몸의 변화를 위해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 몸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23절). 그러나 26절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일으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문맥에 맞게 우리는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총명한 수가 들어왔을 때 로마서 11장에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음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왕국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세상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또한 일부 학자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는 이 탄식은 방언 기도의 체험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실제로 이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방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나는 확실히 방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제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가 회심한 지 이틀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방언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즐긴다. 특히 나의 지성이 연구에 폭 빠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말 좋네요.

바울은 너희 영이 기도하고 너희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그런 부분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니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소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음, 혀는 글로사(glossa)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사용하거나 누가가 명확하지 않은, 즉 말이 없는 것에 사용하기에는 정말 이상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단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음절이 기능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또는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뭔가를 연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모든 논쟁이 여기서는 실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스스로 중보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점에서는 같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언어는 한숨의 언어이기도 하다.

그것은 구약성서의 헬라이어 번역인 출애굽기 2:23과 24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새 출애굽의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새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5-26의 9번째 세션입니다.